

## 역사에 길이 전할 애국헌신의 대장정

출중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셨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월남의 하노이에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고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월남방문은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하에서 조선월남친선의 역사적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 나아가시려는 숭고한 일념의 발현으로 된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방문 첫날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심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적, 정부적태양을 활발히 벌리며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나아가 한다고 하시었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은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은 월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증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월남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하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마련한 열 회에서도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심혼이 어리어있고 조선월남친선의 력사를 피로써 새긴 두 나라 력사들의 공동의 념이 깃든 월남을 찾는것은 너무도 용당한

것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하시면서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손잡고나아가 갈 의지를 확인하시었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은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풀들어 가꾸어 오신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을 앞두고 진행됨이 없이 계승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을 앞두고 진행됨이 없이 계승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월남방문의 나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월남당과 정부, 인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셨다.

경에 하는 원수님에 대한 월남당과 정부,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세계자유화위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분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가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하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서 2만여리의 마나면 로정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 활동을 벌리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의 평화와 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아로 새겨지게 될것이다.

## 그 리 움 의 열 울 리 칠 준

오셨다 우리 원수님  
조국을 떠나 인민을 떠나  
열흘날 열흘밤  
2만여리 외국방문의 대장정에서  
원수님 몸성히 돌아오셨다

열흘!  
력사의 순간과도 같은 짧은 나날  
하나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에  
천날, 만날로 흐른 날과 날이었다

가시는 그 길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서던 마음들  
몸성히 돌아오시라 기다리던 인민들  
가다림에 기다림에 맞이 한 그이께  
삼가 드리는 축하의 인사여!

그이 오시면 보여드리자  
그이 오시면 기뻐드리자  
충정의 낮과 밤이 흐른 열흘날 열흘밤  
그 하루하루에 불타던 그리움을 한껏 터쳐

원수님께 드린 인민의 경의여!  
  
우를수록 목이 짝 메어오는  
그처럼 빛고싶던 인민의 아버지  
조국의 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과 로고 다 바치시는 원수님

자로운 아버비를 모시고 사는 행운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끝없는 행복  
얼마나 가슴에 차넘치는가  
진정 그이를 떠나 순간도 살수 없어야  
원수님 없으면 우리 정녕 못 살아

그리움의 열흘날 열흘밤  
어찌 력사의 한순간처럼 짧다고 하라  
일심단결로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안고있는 열흘  
그이와 운명의 괴출 있고 사는 이 나라 인민  
원수님 받들어 끝이 없을  
오, 충정의 천만날이다!

##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김 송 립

마나면 외국방문의 길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원수님  
환하신 미소로 펼쳐서 내리실 때  
인민의 가슴에 뚫어오른것은  
격정의 파도인가 환희의 눈물인가

조국의 무궁번영  
겨레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2만여리 멀고먼 길 다녀오신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에게  
따뜻한 귀국인사 보내셨으니  
정녕 고마움의 인사는 누가 드려야 하는가

그이 대장정에 오르신 그날부터  
밤을 잊고 산 인민  
원수님 기뻐하시게  
보답의 날과 날로 이어온 인민

정력적인 대외활동 펼쳐가시는  
원수님 가까이 있었으니  
떠나신 그날에도 뜨거운 눈물

아, 조국에 그이 돌아오신 오늘에도  
인민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인민들  
상봉의 시각이 너무도 기쁘시어  
원수님은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고  
가다림 기다리던 아버비를 맞이해  
인민은 쌓아온 그리움 한껏 터쳐노라

인사를 받으시라!  
다함없는 축하를 받으시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대장정 다녀오신 원수님  
이 세상 환골이라도 가실 우리 원수님

그이를 모시고 그이를 받들어  
세월이 다하도록  
충정의 천만리를 걸고걸으리라  
하늘땅 끝이라도 따르고 따르리라  
불같은 이 진정한 인민은 경건히 드리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접하여 환호를 울리는 근로자들

## 한 교육자에게 하신 투표

주체45(1956)년 11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방주권 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선거장으로 꾸러진 당시 평양제1유치원을 찾으셨다. 선거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유치원을 어데서 꾸러

주었는가 물으셨다. 한 일군이 대의원후보자인 유치원 원장과 교양원들, 학부형들의 힘으로 꾸렸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대의원후보자 유치원 원장에게 투표

하시고 그의 사진앞에 서시더니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선거를 할수도 있고 선거를 받을수도 있는 좋은 사회제이며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을 더 잘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 군사교육기관을 찾으시여

주체92(200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를 위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나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학이 우리 혁명투쟁의 핵심골간양성기지, 군사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해온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혁명투쟁강화발전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위치와 어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 인민의 대표된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주체104(2015)년 7월 어느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 그들의 공로를 평가해주시면서 앞으로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고 고무격려 해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고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궁지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느라 온 근로인민대중이 지닌 존엄과 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설렘을 금할수 없다.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 선거에 대한 생각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국인민들 너도나도 떨쳐나 애국의 한표를 바쳐 고마운 국가와 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질것이니 정녕 걱정없이 맞을수 있는 날이다.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 침략적 본색은 가리워질수 없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운운하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다.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이 땅의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쳤다.

## 통일에국운동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중시하시여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온갖 구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참다운 녀성인권을 요구하는 녀성들의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3.8국제부녀절이 생겨났다.

수령님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시 위하여 평양에는 남측대표단과 해외동포 녀성들을 만나시었다.

어주시고 따뜻한 담화도 나누시었다.

일을 위해 정력적인 기자회견을 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의 여러곳에서는 녀성정신, 녀성차별, 녀성폭력과 녀성학대라는 사회악이 근절되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맡고있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련자가가는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높이 노래를 불렀던 녀성을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시 위하여 평양에는 남측대표단과 해외동포 녀성들을 만나시었다.

영도자를 잘 만나는것은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 큰 행운으로 될뿐아니라 녀성들에게도 더없는 행복이고 궁지로 된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이라고, 수레바퀴가 한쪽만 돌아가는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시며 사회발전에

김련자가가는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높이 노래를 불렀던 녀성을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시 위하여 평양에는 남측대표단과 해외동포 녀성들을 만나시었다.

영도자를 잘 만나는것은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 큰 행운으로 될뿐아니라 녀성들에게도 더없는 행복이고 궁지로 된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이라고, 수레바퀴가 한쪽만 돌아가는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시며 사회발전에

김련자가가는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높이 노래를 불렀던 녀성을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시 위하여 평양에는 남측대표단과 해외동포 녀성들을 만나시었다.

## 침략적 본색은 가리워질수 없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운운하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다.

이 번 훈련에 남조선군부당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사령부,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제한된 성원들을 참가시켰다.

이 번 훈련에 남조선군부당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사령부,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제한된 성원들을 참가시켰다.

이 번 훈련에 남조선군부당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직속 합동사령부,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제한된 성원들을 참가시켰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적대관계해소와 군사적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문에 대한 만족한 위반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